

젠더와 세대, 전혀 새로운 10대, 그후는?

우석훈 (경제학자)

1.

한국 경제는 '압축 성장(condensed economic growth)' 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표현된다. 1945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다. 1973년 유신 헌법이 만들어질 때,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다.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이라는 장기 호황 속에 재건을 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기 전까지, 한국 역시 '도약'부터 산업화를 매우 빠른 속도를 진행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산업 혁명 이후 몇 백 년에 걸쳐 경제 성장을 한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례가 없어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압축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 사회가 시간을 갖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가는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은 지난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내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 1995년 OECD에 가입할 때, 멕시코가 가입하는 기회에 한국이 편승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개도국 시절,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을 지금 개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압축 성장의 특징은 속도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면서 발전해 온 많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새로운 문제로 과거의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풀어나간 문제보다 새로 생긴 문제가 더 많다. 부동산 문제가 그렇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이런 과거로부터의 특수한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저출생이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지역 경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지금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자영업자 역시 대단히 한국적인 문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자영업이 늘어났는데,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특징이 되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최빈국 시대의 제도, 개도국 시절에 형성된 문화 그리고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난 청소년과 청년들, 이 모든 것들이 광복 80년이라는 시기에 공존하고 있다.

한국 특히 한국 경제의 속성은 속도다. OECD에 가입하던 시절, 21세기가 되면 개도국 시절의 많은 모순점들이 시간을 갖고 해소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졌고, 한일, 한중, 역내 관계는 위기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문제가 젠더 문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제도와 문화가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프랑스나 독일에도 젠더 문제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여성의 경제 참가가 늘지는 않았다. 경제적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는 있지만, 제도나 문화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2. 60년짜리 사이클, 40년짜리 사이클

‘청년의 극우화’는 2년 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다당제 국가이다. 노인들의 노스탈지아에 가까운 국가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극우정당에 청년들이 대거 표를 주었다. 유럽의회에서 사실상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 극우정당이 약진과 함께 녹색당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기계적으로만 분석하면, 적지 않은 숫자의 청년들이 녹색당 대신에 극우정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프랑스는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당이 군소 정당으로 몰락해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지 꽤 된다. 지금은 극우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 정당에 좌우가 모두 표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극우파의 약진을 쉽게 설명하면, 68혁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8혁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노동 운동 중심의 좌파에서 여성, 인권, 환경 등 소위 ‘신좌파’가 전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 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넓어졌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흐름이 트렌드가 되었다. 프랑스, 독

일 등 사민주의가 새로운 집권세력이 되었고, 그렇게 소위 '68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

90년대 동구의 붕괴와 함께 세계화라는 전혀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는데, 이 흐름은 기존의 질서에 많은 균열을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적인 경제적 결과로 글로벌 체인에서 배제된 계층이 생겼고, 중산층이 약화되었다.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국가와 민족을 기치로 하는 새로운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수적으로 68 이후 집권 세력이 된 사민주의 정권에서의 부패와 관료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 강해졌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유럽에서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68이후 오랫동안 청년들이 진보적인 흐름이었지만, 68로부터 멀어지면서 부모 세대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청년의 보수화 혹은 청년이 극우화 등, 68에서 멀수록, 새로운 세대일수록 더 국가주의적이고, 신좌파 의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강하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차이만은 아니다. 영국을 10년째 대혼돈으로 몰고 간 '브렉시트'가 이런 흐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냥 단순한 문화적 사건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일본 자민당에서의 극우 블록의 대약진 등 WTO 중심의 국제 무역은 물론 UN 주도의 세계질서 자체가 재편될 정도의 강력한 변화 요소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68 이후 60년짜리 사이클이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난민 정책에서 촉발되었듯이, 국제적인 문제들이 경제적 이해와는 달리 국가주의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끌어나가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중국 문제다. 짧게 보면 세계화의 폐해, 넓게 보면 68 이후의 진보세력의 약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의 선진국보다 전후 '영광의 30년'이 20년 정도 늦다. 유럽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장기 호황이 종료하였는데, 우리는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종료하였다. 사회적으로도 공교롭게 유럽의 68에 해당하는 87년 6월 항쟁이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기계적인 시각이지만, 유럽의 68이후 60년간 겪은 일련의 변화를 우리는 87년 이후 40년간 겪고 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일치한다. 청년의 보수화는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인데, 다만 젠더라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서 양상이 좀 달랐을 뿐이다. 흔히 '이대남' 현상이라고 하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먼저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젠더 투표 현상, 소위 '국민남 민주녀' 흐름이 일

시적으로 생겨났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주로 지지하고,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럽의 60년 보다는 짧은 40년짜리 사이클을 지나게 되었다.

3. "엄마도 페미야?"에서 "523"으로

앞으로의 20대를 보기 가장 편한 방법은 지금의 10대를 보는 것이다.

지금의 20대가 10대였던 시절,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엄마도 페미야?"라는 문장이다. 진보적인 엄마에게 안티-페미니스트가 된 중고등학교 아들이 던진 짧은 질문이었다. 이 문장 하나로 소위 '멘붕'을 겪은 어머니를 내가 본 사례만으로도 수십 건은 넘는다. 이 10대 남성들의 젠더 문제에 대한 반감은, 영남과 호남에서도 차이가 크게 없는, 거의 전국적 현상이었다. 이 10대들이 지금의 20대 남성이다. 의제에 따라서 지금의 20대는 젠더 양상을 보인다.

지금의 10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523"이다. 여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고, 젠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사가 "우리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지?"하고 질문하면 "523페이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활용형이다. 이 코드 523에는 남녀 편차가 거의 없다.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일이다. 노무현 밈에서는 젠더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30년 청년들에게 가장 격렬한 반향을 일으키는 단어는 조국이지만, 10대로 내려오면 조국 사태는 벌써 지나간 일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다. 문화 현상으로서 노무현만 남는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지난 노무현 추모식에서의 청년들의 난입 사건이다. 문화로서 밈으로서, 523은 10대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10대에서 젠더 편차가 없는 또 다른 현상은 혐중이다. 중국에 대한 보편화된 혐오에서는 젠더 이슈가 별로 없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혐은 보편화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라는 실체와 혐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굳이 현상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의 20대~30대는 정치적으로는 '스윙 보터', 즉 다른

당을 넘나들면서 투표하는 사람에 가깝다. 이걸 개인주의 성향 혹은 이익주의 성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탈정치 혹은 정치혐오주의 같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열성적인 당원이라는 고전적인 정당론과는 잘 맞지 않는 그룹이다. 남성만 놓고 보면, 민주당 성향은 20대 내에서 1/3이 되지 않는다.

10대로 내려가면,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럽식 기준으로는 극우파 정당은 아니다. 드골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당과 좀 더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극우정당이 분화되어 있다. 중도우파와 극우라는 시각으로 다른 정도를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보수당과 극우정당의 관계와는 달리, 한국의 보수 정당은 미분화되어 있다. 한국의 보수를 고전적으로는 반북 보수와 경제 보수로 나누었는데, 이 두 그룹이 보수당 내에서 공존하며 한국의 보수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 노무현과 혐종을 두 축으로 하는 지금의 10대와 국민의힘은 잘 맞지 않는다. 아마 유럽식 극우정당이 한국에 존재했다면, 지난 유럽 의회 선거와 유사한 폭발적 반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그냥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모습을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야구라는 단체 경기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전면화된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어느 학교, 특별한 어느 10대 집단의 일은 아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되었다.

사회과학자로서, 지금 한국의 10대를 본다면,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5~6학년의 김일성 놀이로 시작해서, 혐종 놀이와 노무현 밈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쯤은 '완성형 극우'가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민주당 성향을 가진 학생이 1명이라는 고등학교들도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 방송에서 10대를 초대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방송을 하고 난 후, 그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지금의 사교육 체계와 영어유치원으로 대표되는 고가화된 영유아 교육, 중학교에 집중된 특목고 준비, 이런 10대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기에 AI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공포는 상상초월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있는 여학생이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제대로 된 여성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경제의 속성, 그런 구조적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이 “고향 탈출”을 꿈으로 갖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앞으로 생겨날 변화들

스웨덴 극우파 정당의 이름은 민주당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름만 그렇고 전형적인 극우정당이다. 영문 이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영어 이름은 ‘피플 파워’, 전형적인 좌파 정당의 이름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스웨덴 민주당이 스웨덴의 주거권 문제에서 맨 앞에 있는 정당이기도 하다. 주거권은 대표적인 진보 의제이지만, 스웨덴에서는 이 문제를 극우파 정당이 가장 열심히 싸운다. 실제 당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결국 당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위스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국민투표까지 가서 이라크 파병을 막은 것도 결국 스위스 극우파 정당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유럽의 극우파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어느 정당보다도 더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처음 등장한 유럽의 극우 정당이 가진 30년 역사는 그냥 무시할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10대들이 극우화 되면서 생겨날 가장 단기적인 통일 담론에 대한 변화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북한은 그냥 적이다. 여성부가 폐지 위기를 겪은 것처럼, 통일부도 존속되기 어려운 부처가 되었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질문을 하고 토론할 것인가, 이게 단기적인 변화다.

많은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10대의 변화에 따라 기관 자체가 위기감을 겪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닐까 한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자신들이 받을 수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적극 재정과 복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의 보수화가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복지 제도 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다. 연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설령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

는 새로운 세대들이 늘어나는 중이다. 연금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복지 제도 설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보수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이 될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장기적인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의 역내 평화에 대한 문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역내의 경제적 번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중일의 평화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일본의 협동이 늘어나고, 이를 보완하려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내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극우화된 청년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사소한 문제로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을 치루고, 역내에 전쟁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 유럽의 노력들이 지금의 장기간에 걸친 역내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중일은 서로 경쟁 중인 산업이 너무 많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계 전역에서 갈등 중이다. 힘이 센 나라들이 너무 가까이에 많이 붙어 있다.

5. 다시 기본으로!

10대의 극우화는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금 해소한다고 해소할 성격의 변화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고, 일순간에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집단으로 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노회화된 정치 구조가 빠른 시간에 청년 중심으로 권력 구조 재편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90년대 처음 극우 정당이 등장할 때 유럽은 '나치당'의 출현이라고 경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후 30년이 지나서, 새로운 극우 청년이 등장했고, 정치적 지형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토론하고 타협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 이게 민주주의다. 서로 한국이라는 한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같이 만들어나가는 사회, 이게 광복 80년 이후 또 다른 8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다음세대일수록 점점 더 보수화되는, 본격적인 선진국 트렌드 위에 올라타 있다. 다시 기본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Ps. 전공에 대한 보조 전공으로 10대 연구를 선택한지 30년이 지났다. 10대 연구는 내 평생 만나본 모든 주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주제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 가지를 알았다. 압축성장이 특징인 한국에서, 이젠 세대와 같은 10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직까지는.